

2025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4.17. 14시30분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10/10	2	2	14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구종상, 최은수, 이경화, 김광석, 전계순,
김병수, 안서연, 백명희, 박세진, 임태순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 경영진 외 : 심의부장, 시청자센터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8	-	-	-	18	-	18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8	-	-	18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공식 홈페이지에 영상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들(뉴스오늘, 라이브투데이, 뉴스워치, 뉴스24, 뉴스01~04, 인사이드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만으로 프로그램의 진행 상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폐지 여부나 불규칙한 방영일 등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길 바랍니다.(구종상 위원장)	전체적으로 한눈에 들어오도록 가독성 좋고 편의성이 강화된 직관적인 디자인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쉽게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였으며 4월21일 오픈했습니다. 주요 개편범위로 PC&Mobile 전체 메뉴, 메인페이지, 기사본문 페이지를 개선하였습니다. <25.4월 조치>	'25.3월
보도	백종원 된장, 국산이라더니 '중국산' 원료 논란..."법 인지 못해" 사과, 기사 내용에 해당제품 및 표시사항을 함께 보도한 부분은 소비자 이해를 돕는데 적합했으며 향후 식품안전 차원에서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전계순 위원)	잇단 논란에...백종원 더본코리아 "다 바꾸겠다" 입장문(4.15.보도) 백종원 더본코리아 회사를 계속 진행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였으며, '원산지 표기 위반 의혹' 지코바치킨 "순살은 브라질산 닭만"(4.15.보도), 중국산 바지락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 업체 검거(4.17.보도) 한돈만 쓴다더니 미국산 돼지고기 넣은 맛집...서울시 단속 적발(4.20.보도) 먹거리가 중요한 만큼 식품의 원산지 표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5.4월 조치>	'25.3월
총 건수		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5. 01. 01.~ '25. 12. 31.)'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홍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심평변호사	-	18.7.1.~26.6.30
임윤주	1985.08.28	(현)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	21.11.01~25.10.31
안지연	1989.06.27	(현)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	23.02.01~27.01.31
최미연	1983.09.05	(현)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전임연구원		24.09.01~26.08.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5. 1. 1. ~ '25. 12. 31.)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구종상	현)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특임교수 전)MBN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언론 학술	
부위원장	최은수	현)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AI 석학교수 전)MBN 보도본부장	AI경영학회	경제	
위원	이경화	현)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전)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학부모정보감시단	학부모 단체	
위원	김광석	현)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교수 전)KBS 미래방송센터건설단장	한국방송학회	언론 학술	
위원	전계순	현)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전)한국소비자교육원 사무총장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 단체	
위원	김병수	현)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장 전)중소기업중앙회 공제마케팅실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단체	
위원	안서연	현)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동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단체	
위원	백명희	현)도담약국(김포) 대표 전)대구 파티마병원 약제과	대한약사회 경기도지부	과학기술 단체	
위원	박세진	현)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장 전)연합뉴스TV 시청자평가원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문화 단체	
위원	임태순	현)중소벤처기업인증원 교육평가실장 전)중소벤처기업인증원 인증개발팀장	좋은변화	인권 단체	
변 동 사 항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유튜브 채널 개선 사항, 유튜브 채널에서 현장연결, 속보, 일반 뉴스 썸네일의 글자색을 다르게 표현한 점이 효과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더 눈에 띄고,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좋은 클립은 '썬속뉴스'인데, 사람들의 관심을 잘 끄는 주제로 선택된 것 같습니다. 다만, 조회수를 목적으로 자주 업로드할 경우 '사이버렉카'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히	유튜브 채널은 저희가 본 채널 말고 서브 채널을 지금 하나 런칭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다큐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다큐들을 새롭게 편집을 하고 재가공하고 새로운 것도 좀 추가해가지고 만들고 있어서 이것도 이번 달 중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활성화하는 것이 유튜브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구종상 위원장)				
보도	선거 보도 준칙 제정 필요, 조기 대선이 이제 시작이 돼서 선거 열풍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선거 시즌이 되면 여야에 서로 입장 차가 다른 패널들이 나와서 회사의 생각하고 다른 이 코멘트 때문에 서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선거 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최은수 부위원장)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패널추천 위원회를 회사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널 위에서 패널을 중립적인 면에서 일단 여야 균형에 맞게 항상 여러 가지 발언의 수위나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그게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패널 출연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선 때는 더욱 이런 공정한 대담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선거 보도 준칙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선거 보도 준칙이 사실상 살아 있는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엄격하게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보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출연자 이름의 정확성 확인 필요, 사람의 위치와 무관하게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 발견했습니다. 사람 이름 밑으로 이름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이름을 삭제하는 시간과 횟수도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특정인은 오랜기간 등장하고 또 다른 특정인은 금방 이름이 사라지는 것은 객관성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최은수 부위원장)	출연자 네임택 위치 조정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조금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람 이름이 엉뚱한 데 이렇게 겹쳐지지 않도록 조정을 했고 바로잡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보도 *시청자 불만활용	산불기간 연예뉴스는 자제 필요,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시청률을 고려하는 요인도 있겠지만 연예인 김수현 보도는 자제하는 게 필요성이 있지 않거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으	산불이 났을 때 저희가 사실은 연예보도를 굉장히 자제했습니다. 그때 워낙 산불이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연예인 기사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당시에 지자체와 잡혀 있던 여러 가지 행사 기사들 그리고 그때가 축제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로서의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있습니다.(최은수 부위원장)	들이 많았는데 각종 축제와 관련된 캐스터, 리포터 이런 것들을 전부 줄이고 국가 재난방송 수준으로 임했는데 김수현 씨 기사는 워낙에 관심을 많이 끄는 기사여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갈 수가 없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의성 안동 산불사태보도 관련하여 금년 발생한 산불 사태는 우리나라 최대 산불 사태인 대형 재난사건이라 산불사태 보도(티비채널 23, 유튜브 채널 등을 이용하여 여러 날 여러 시간 간에 걸쳐 산불사태를 시청하였습니다. 대형사건 보도 기사를 접하면 상대를 향한 지적과 불만을 자극하여 실상에 대한 진실성을 찾기 어려워 여러 채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사태 보도는 재난방송 보도의 역할과 보도의 진실성, 감성보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이경화 위원)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취재 역량을 다 동원해 가지고 기자들이 현장에 현장에서 모든 거를 다 보여주고 전달하고 시시각각 돌아오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이번 사태가 얼마나 위중한 상태고 이게 얼마나 큰일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전력을 쏟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시청자 눈에는 크게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보도	[다다를 인터뷰] 산불이 휩쓴 자리, 나눔으로 덮다...희망 싹틔운 의성의 기적, 최근 발생한 경북 의성지역 산불에 따라 이재민들이 발생하였고, 산불 진화를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관, 경찰, 자원봉사자를 위해 의성지역 커피(샌드위치)가게를 하시는 분과 추어탕집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본인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커피(샌드위치포함)와 추어탕을 무료로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김광석 위원)	이번에 산불 나면서 일반 TV채널을 통해서 직접 뉴스를 재난 소식을 전하는 거 외에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콘텐츠들을 좀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요. '다다를 인터뷰'는 제목 '다다를'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을 품고 있는데 다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다양한 인생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다 다르다라는 뜻이 있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만든 인터뷰 코너명입니다. 이게 저희가 유튜브에서 가장 저희 대표적인 코너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		
보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18년 만의 연금개혁 후폭풍...“우리만 독박” 청년층 거센 반발, 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2030 청년층의 불만과 국회에서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연금개혁 관련은 이렇게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완전탐사 보도는 아니지만 준탐사 보도의 성격을 가진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그들 세대를 대변하고 있는 3040국회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자세하게 보도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연금개혁에 따른 파생적인 문제들, 즉, 저출생, 정년연장문제, 초고령사회진입 등 다양한 주제들을 심층보도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론형성에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김광석 위원)	저희 코너입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저희가 중요하게 다뤘고요. 앞으로도 저희 연합뉴스TV는 이슈를 발굴해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 사고에 사과... "재발방지 최선", 2025.4.8. 이와 같은 보도를 접할때 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기업의 안전사고(SPC 등) 책임 소재에 대한 명백한 조사와 피드백,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겠으며,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의 혁신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캠페인 등 연합뉴스TV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전계순 위원)	언론 보도가 사실은 기업 안전 이런 문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기업 들의 어떤 처한 상황들을 보호해 주는 필요는 있겠지만 안전 문제에 관한 한 저희도 언론 입장에서 관용 없이 보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이 안전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캠페인 등을 관심을 가지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		
보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18년 만의 연금개혁 후폭풍... "우리만 독박" 청년층 거센 반발, 연금개혁은 단순히 연금보험부담률 인상과 지급시기 지연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의 문제 해결방안과 병행해서 다뤄야 할 난제 중 난제입니다. 18년 만에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매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김병수 위원)	연금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외국 사례 같은 거를 조금 많이 우리가 찾아보고 거기에 직접 취재진을 보내가지고 외국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계획을 좀 넓혀가지고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국내에서만 사실은 이걸 숫자 가지고 보여주면은 시청자의 주목을 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템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호흡을 길게 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직접 외국을 나가서 찍는 그런 영상들을 좀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보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일할 청년들	청년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참 어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어디 갔나... '그냥 쉬었음' 50만명 첫돌파,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종으로 청년 모두가 취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81%가 취업하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므로 청년 실업(자발적 실업 또는 비자발적 실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취재가 빠져있어 아쉬웁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들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청년채용지원금 등 중소기업 청년취업장려금 지원제도 등에 대한 내용까지 취재를 했더라면 더 알찬 프로그램이 됐을거라 생각합니다.(김병수 위원)	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또 언론에서도 과연 이걸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사실은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에 여론실태조사 같은 그런 좋은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런 걸 가지고 근거로 우리가 뭘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가 좀 들고요. 우리 경제의 근본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쉬는 청년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는 3분짜리 리포트나 '뉴스프리즘' 한 회분으로 다루지기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고용 구조를 다루는 좀 더 근본적인 기획 프로그램이나 '뉴스프리즘'을 통해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리부팅 지방시대 : 휴게소의 혁신, 과거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유통기업들의 지방 진출 시 해당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매출의 급감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의 폐업 속출로 이어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대기업 또는 대기업 자회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게소의 혁신이 지방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리부팅 지방시대 기획 의도와는 다소 맞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동 프로그램이 지방소멸 시대에 다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자 하는 리부팅 지방시대 기획 의도에 부합하려면 휴게소 직원은 지역 우선 채용, 휴게소 먹거리 재료는 그 지방 로컬푸드만 사용 등 휴게소와 지역이 상생 협력하는 사례까지 포함됐더라면 리부팅 지방시대 기획의도에 더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병수 위원)	'리부팅 지방시대' 휴게소편은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자체는 재미있었습니다. 이 사안도 이게 좀 새롭고 저도 이 휴게소를 지방과 엮어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나름 아이템은 좋은 아이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리부팅 지방시대'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한계가 있는 코너예요. 저희가 지자체랑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가 완전히 창의적으로 만들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보도	"북한군, 또 군사분계선 침범", 북한 관련한 뉴스에 관심이 있어서 관심있	지성림 기자가 쓴 기사 보시고 각별하게 생각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게 보고 있습니다. 지성림 기자분이 북한 뉴스 보도를 많이 하셔서 검색하여 보니, 북한이탈주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기자분이 북한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각종 보도를 자연스럽게 심도있게 취재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활약을 기대합니다.(안서연 위원)	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지성림 기자가 북한이탈 탈북주민이었습니다. 이쪽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기사를 쓰고 있고 방송 각사 보면은 한 명 정도씩 탈북 기자들이 있는데요. 주요 언론사들이 다들 이쪽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주 발군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도	다다를 인터뷰, 산불이 휩쓴 자리, 나눔으로 뒀다.. 희망 싹틔운 의성의 기적, 의성에서 산불 보도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다를 인터뷰에서 의성에서 소방관, 이재민들을 돕고 있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 추어탕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에 관한 취재를 하여, 화재 상황에서도 일상은 지속되고 있고, 그 안에서 서로 돕고 재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 인상적이었습니다.(안서연 위원)	'다다를 인터뷰'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이런 어떤 휴머니티가 있는 그런 류의 기사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도	한 대형 트럼프 통화, 상호관세 파고속 협의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의 통화 이후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향후 한미 관계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취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트 SNS, 조현동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강화 확인, 미국에 방문한 미국에 방문한 통상본부장 등의 발언 등의 보도도 의미는 있겠지만, 한국에서 보도할 수 있는 내용 이외에 미국 특파원으로서 미국 현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다양한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안서연 위원)	워싱턴이라는 데가 정말 취재의 넘사벽 같은 곳입니다. 정말로 취재가 힘들어요, 백악관의 고위 관리들하고 한 번 연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요 취재가 힘든 곳입니다. 그래도 정호윤 기자가 열심히 잘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보도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관세 문제라든지 또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대통령 부재 상태에서 미국과 어떻게 외교를 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잘 파악해가지고 좋은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겠습니다.	○		
보도	[현장있슈] 거센 화마 덮치는데 쇠목 줄은 1미터...젯더미 속 동물 구조,	현장에서 기자가 직접 동물을 구조하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일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p>'매뉴얼'은 없었지만... 이번 취재 내용을 통해서 민간 동물 구조단체가 여러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경없는 수의사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사유재산이라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동물들의 피해도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뒤늦게나마 '재난상황 동물구조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 매뉴얼이 실제로 만들어 지는지 향후에도 후속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백명희 위원)</p>	<p>련의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아지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이게 사유재산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물 구조 단체랑 병원에다가 신고만 하고 결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입니다. 흥미 위주의 단발성 보도가 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재난상황 동물구조 매뉴얼' 수립 과정에 대한 후속 취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p>			
보도	<p>목탁 쿠키번뇌 닳는 수건..Z세대 사로 잡은 '불교 굿즈', 이유는? 2025-04-03, 부처도 솜사탕 들고 웃습니다...불교가 '힙하다' 2025-04-05, MZ세대 사로잡은 재밌는 불교...서울국제불교박람회 인기 2024-04-07,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대한 시리즈 형태의 기사로 각각 인터넷 기사, 일반 영상 기사, 현장 연결 기사로 구성되어 정보 전달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좋은 기사였다고 평가됩니다.(박세진 위원)</p>	<p>흔히 이제 언론사에서 종교 문제를 다루는 거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 문제를 다루면은 개신교 쪽에서 싫어할 수도 있고 또 가톨릭이나 이쪽에서도 그래서 가급적 종교 문제는 피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불교가 약간 대중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뉴스로 취급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가끔씩 불교박람회라든지 MZ세대한테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현장 연결도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작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도 그런 일환으로 된 거고요. 나름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		
보도	<p>4월 4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보도 시,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모두 중간에 연결이 끊기고 재접속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오류는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로 특히, 탄핵 관련 보도와 같이 중요한 시사 뉴스의 실</p>	<p>유튜브가 기술적으로 끊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방송에서 어떤 이런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말 그대로 방송 매체의 신뢰성 저하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시간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사용자 경험을 크게 저하시키며, 타 채널로의 전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 연결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진 위원)	늘 저희가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심사 숙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불편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무엇이 문제였나(4.5.)이번 경북 산불처럼, 산불은 더 이상 계절성 재난이 아닌 일상 속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산불이 일어난 후에야 대응책을 마련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준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뉴스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기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문제들이 공론화되어 빠르게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깊이 있는 보도,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대하겠습니다.(임태순 위원)	저희가 이제 준탐사보도 성격인 '뉴스프리즘'에서 간단하게 다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체계적인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 건지 대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합뉴스TV 스페셜'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